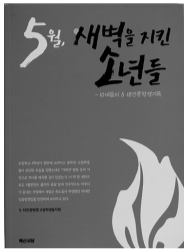


'80년 5월 광주 학생들 이야기' 책으로 나왔다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 출판

43년 만에 5·18고교동지회 제작 미공개된 다른 사실 새롭게 추가 교육청, 계기교육·위원 강의 초빙



"미안하다, 아우들아. 마지막날 밤, 너희들은 집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끝내남아졌을 때 사실 울컥했다. ... 투쟁의 역사는 기억으로 발전해 왔다. 그대들의 소중한 기록은 민주화운동사에 큰 자산이다. 고맙다."

-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80년 5월 도청을 지켰던 동생들에게 쓴 편지.

1980년 5·18 당시 사망하거나 구속·부상당한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에 대한 증언록이 43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는 27일 오후 옛 전남도청 별관1층에서 증언록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 (본보 2022년 12월6일자 "박근혜 열사, 한혈차랑 안에서 총격당해 숨졌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증언록 첫 시리즈는 △1부 별이 된 소년들(사망자) △2부 시민군이 된 소년들(구속/부상자들) △3부 동지가 된 소년



80년 5월 광주 학생들 이야기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 출판 기념회가 27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들(전남 지역)로 구성됐다. 부록으로 전주 신흥고에서 진행된 5·27신흥민주화운동에 관한 증언도 실렸다.

앞으로도 사망자, 구속·부상자 30명에 대한 증언이 각각 두번째, 세번째 시리즈 책자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증언록은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 관계자들이 수년 동안 본인 혹은 가족 등 주변인의 녹취와 구술 등을 모아 완성했다.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항쟁 상황판 검증 작업 등을 거쳐 신뢰도를 높였고, 나경택 당시 전남매일신문 사진기자

와 김향득(당시 고등학생) 사진작가의 사진물을 삽입해 현장감을 채웠다.

최치수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장은 "죽는 날까지 초·중·고 학교 교실을 찾다니며 5월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며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사실들도 담겨 진실 규명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당시 학생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故) 문재학 열사 등 소년열사의 유족들과 열사들의 고등학교 은사들이 기념회에 참석해 청소년 열사의 이야기가 출간된 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동고에서 전영진 열사를 가르쳤던 박석우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5·18의 진상규명이 엄중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전 이사장은 "전영진 열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혔다. 5·18재단 이사장을 하던 시절에도 전 열사의 묘지를 차마 방문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

러 재작년에야 묘소 앞에 꽃을 놔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을 위해 죽었던 이들이 진정한 5·18 유공자"라며 "당시 소년들은 위대했고, 계엄군은 잔인무도했다. 오늘 항쟁의 주역이었던 소년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이 책에 광주 5·18의 진실이 담겼다. 이 책을 기준으로 진상규명이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귀한 교육자료가 발간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박석우 선생님을 포함해 여러 은사님들의 귀한 가르침 덕에 그날 학생 열사들이 현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며 "광주시교육청도 이 소중한 기록들을 교육자료로 활용해 오월 정신과 그날의 진상을 후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5·18 항쟁 주역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4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18평화 세력을 뿌리뽑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하늘의 별이 된 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전남교육청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5·18민중항쟁고등학생동지회 측과 협의를 통해 각급 학교에 해당 녹취록이 계기교육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 편집에 참여한 위원들이나 항쟁 당사자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5·18의 진상을 직접 알릴 기회를 만들 방침이다.

김양배 기자

양기람 기자 lotus@jnilbo.com

전남대, '광주·전남 지역 신문 100년' 발간

구한말~1987년 언론자유화 이전

광주·전남 지역의 신문발전 과정을 담은 '광주·전남 지역 신문 100년'이 발간됐다.

그동안 지역에서 간단한 자료집 이외에 신문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었던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7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구한말부터 5공

화국까지 광주·전남 지역 신문의 태동과 발전 과정을 집대성한 '광주·전남 신문 100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광주전남 신문 100년'은 구한말부터 1987년 언론자유화 조치 이전까지의 신문 역사를 다뤘다.

광주·전남에선 1899년 일본인이 발행한 '목포신보'를 시작으로 신문이 소개됐다. 우리말 지역 신문은 해방 직후인 지난

1945년 8월 31일 '전남신보'가 발행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전쟁과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며 많은 신문들이 나타나고 사라졌는데, 이 과정이 다양한 자료와 함께 책에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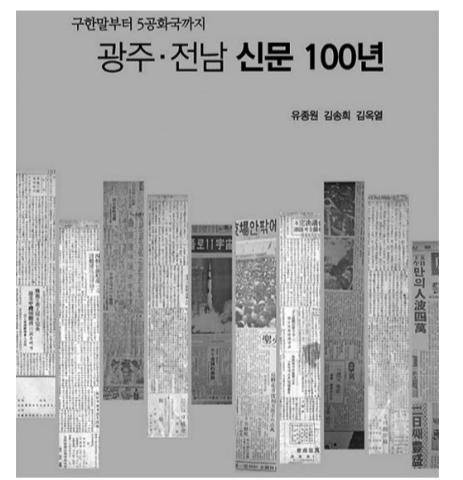
내용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지역신문 발하기) △미군정기(지역신문의 태동과 형성기) △이승만 정권기(정파적 지역신문 정립기) △박정희 정권기(상업주의

지역신문의 성장기) △전두환 정권기(지역신문 암흑기) 등이다.

책은 유종원 언론홍보연구소장과 김송희 언론학 박사, 김옥열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등이 공동 집필했다.

유종원 전남대 언론홍보연구소장은 "초기 언론계 종사자들이 대부분 작고하고 자료도 많이 사라져 집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신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